출판사가 사라지고 있다

도매상 부도여파 체감…출판사 폐휴업 등 위축

도매상 연쇄부도와 경기위축의 여파가 출판계를 강타하여 폐업하거나 사라진 출판사들이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시내 대형서점의 신간 입고량을 보면 전년대비 매달 1천종, 3만부 이상씩 줄고 있는 형편이어서 본격적인 위기를 체감케 한다.

도매상 학원서적의 거래 출판사 가운데 4백 여사가 휴거래처가 됐다. 폐기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출판사들의 재고 도서.

출판사가 사라지고 있다. 도매상 연쇄부도와 경기위축의 여파가 출판계를 강타하며 폐업하거나 '잠수' 하는 출판사가 늘고 있다. 출판사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98년 1/4분기 동안 폐업한 출판사는 205곳. 97년말까지 등록된 출판사가 12,759곳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러나 도매상 연쇄부도와 경제위기가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4분기로 접어들면서 종적을 감춘 출판사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몇 개의 출판사가 문을 닫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통계를 내고 있는 곳도 없다. 다만 서점과 도매상에 입고된 도서의 종수와 부수, 반품된 도서를 수용하지 못하는 출판사 수를 파악하면 어느 정도 실태를 추정할 수 있다.

서점의 신간 입고량 크게 줄어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는 98년 상반기 동안(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발간된 도서의 초판 부수가 9천561만9천157부라고 발표했다. 이는 97년 대비 약 43%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통계 속에는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납본되지 않은 도서가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 출협은 "출판사에 대한 납본 독려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늘어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도서의 발행 부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대형 서점에 입고된 도서를 파악하면 발행 및 유통현황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98년 상반기 동안 종로서적(대표 민병인)에 입고된 도서는 총 16,400종이다. 월별 입고량은 1월 4368종, 2월 3261종, 3월 3001종, 4월 2035종, 5월 1885종, 6월 1850종이다. 반면 97년도에 입고된 도서는 1월 4484종, 2월 3418종, 3월 3600종, 4월 3031종, 5월 2704종, 6월 2634종이다. 즉 98년 2/4분기부터 전년 대비 매달 1천종 이상 줄어들고 있다.

교보문고(대표 박환인)의 입고량 역시 줄었다. 부수를 기준으로 하면, 98년에는 5월 597,718부, 6월 641,798부, 7월 797,627부, 8월 736,919부이며, 97년에는 5월 636,898부, 6월 607,506부, 7월 810,610부, 8월 767,641부가 입고되었다. 월별 약 3만부 가량 줄었으며, 특히 하반기로 가며 입고량이 계속 줄고 있다.

도서의 종수와 부수가 줄어든 것은 출판사의 출판활동이 위축되었음을 반영한다. 이와 더불어 반품할 도서를 수용하지 못하는 출판사도 늘고 있다. 휴거래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두 서점 관계자의 공통견해다. 교보문고 조사홍보과 이관종 과장은 "IMF이후 입고량이 현저히 줄었다. 반품도서가 쌓여가는 것만 봐도 출판을 하지 않는 출판사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서적 기획홍보팀 박인화 대리는 "반품 도서가 점점 늘고 있다. 반품을 받아야 할 출판사 중에 연락두절인 곳이 많아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서점에 입고된 도서의 종수와 부수가 줄었다고 해서 출판사가 사라졌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출판업은 신고제이며, 출판행위를 하지 않아도 명맥은 유지된다. 97년에 등록되어 있는 출판사 중에 81.9%가 실적이 없다. 나머지 가운데 연간 10종 이상을 펴내는 출판사는 30% 정도. 등록된 출판사 중에 출판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출판사는 고작 750여곳 정도라는 계산이다. 이들 또한 도매상 연쇄부도와, 경기침제 이후 출판 양태를 '소품종 소량부수'로 바꾸고 있다. 따라서 종수와 부수만을 가지고 '사라진' 출판사를 파악할 수는 없다.

도매상의 휴거래처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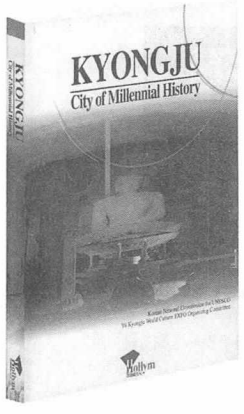
도매상의 거래처를 파악하면 '사라진' 출판사의 현황을 추정할 수 있다. 한국출판유통(주)(대표 허창성)·송인서적(대표 이규영)·학원서적(대표 김홍열)의 월매출은 각각 40~20억원. 전국 시장의 30~35% 정도 점유하고 있어 전문서적·직거래서적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도서가 이들을 통해 유통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출판유통(주)이 거래하고 있는 출판사는 약 1천곳. 악성재고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휴거래처가 2~3백곳으로 늘었다. 한양유통과 합병하기 전 월매출이 15억원 정도였고, 현재 40억원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거래처가 늘었지만 휴거래처 역시 늘어난 것이다. 휴거래처 중에 아예 '사라진' 곳도 1백여곳이나 된다. 부도를 내기 전에 2600여 출판사와 거래했던 송인서적의 휴거래처는 750곳이다. 입고량 대비 반품량이 큰 출판사가 부지기수로 늘고 있으며, 아예 거래를 중단하고 '사라진'

화제의 책

경주, 신라 천년의 고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찬 《*Kyongju:City of Millennial History*》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도시는 경주일 것이다. 우리 전통문화의 본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맞이해 영문판으로 출간된 이 책은 천년의 고도 경주를 다채롭게 소개한다.

경주의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한국문화의 본산이며 국제적 도시로서 경주의 역사·환경·도시계획·사회생활·불교예술·탑·공예품 등을 원색 삽화와 함께 살펴본다. 또한 충실한 내용을 위해 김원용·최순우(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이정욱(서강대 교수), 박동원(전 서울대 교수), 김병모(한양대 교수), 이기백(한림대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이미 199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불국사·석굴암이 있는 경주를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집필해 외국인에게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책에서 밝히듯 '경주는 신라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국제도시'기 때문이다. 〈김연수〉

한림출판사/B5/220면/25,000원

출판사도 많다. 1700여 출판사와 거래하고 있는 학원서적의 휴거래처은 4백개 정도. 부도를 내지 않았고 사세도 확장하지 않았으며, 예년과 비슷한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학원서적의 휴거래처 수는 사라진 출판사를 추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부도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고려북스는 1300여개 출판사와 거래했다. 현재 휴거래처는 7백~8백곳이며, 그 가운데 4백여 출판사가 연락두절이다. 부도상태를 감안하더라도 출판사의 어려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전문서적을 취급하는 도매상의 경우 휴거래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입고량이 현저히 줄었다. 아동서적 전문점 서당(대표 박강희)은 입고량이 70% 가량 줄었다. 백성원 영업차장은 "출판사가 판매 부담 때문에 부수를 줄이고 있어 입고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서적 전문 도매상 예영커뮤니케이션(대표 김승태) 역시 입고량이 줄었다. 과학기술 도서를 집계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회장 유광종)의 문형동 사무국장도 "종수와 부수 모두 줄었다"고 밝혔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뚜렷

서점과 도매상의 상황에서 출판사의 출판활동이 위축되었음은 명확해졌다. 출판활동이 둔화된 첫째 원인은 도매상 연쇄부도의 영향을 꼽을 수 있다. 도매상 연쇄부도로 출판사는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보문당·송인·고려북스의 부도 금액만도 총212억원. 최근 송인 등 몇몇 도매상이 일부분 변제하기는 했지만 출판활동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둘째는 경기침체에 따른 구매욕 저하에 있다. 독자가 책을 사지 않고, 사더라도 불필요한 책을 배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출판여건의 악화. 유통회사의 한 임원은 "요즘 현금을 주지 않으면 종이조차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출판사는 좀처럼 책 낼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쇄비·인건비·광고비·기타 부대비용의 상승도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교보문고의 입고량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초판 발행부수가 30~40% 가량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 부수의 절대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출판행위가 신중해지긴 했지만 전체 출판 부수는 그런 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출판평론가 한기호씨는 "최근 출판 환경이 급변하면서 출판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잘나가는 출판사와 움츠러든 출판사가 양분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출판사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출판계 재편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푸른숲의 김학원 주간은 "출판사들의 불황체감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다품종 소량, 소품종 소량부수의 조심스런 출판행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한다.

양극화는 출판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는가, 아니면 '퇴출 또는 잠적'하는가의 현상으로 구분된다. 부익부 계열에 든 출판사라고 해서 이익이 늘지는 않았다. 출판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62개 출판사 관리하는 문화유통북스(대표 이석표)의 매출이 예년 대비 40% 이상 줄어든 것이 이를 대변한다. 반대로 빈익빈 대열에 든 출판사들의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반기엔 '사라질' 출판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유통북스의 이영복 상무는 "화이트칼라, 즉 대표적인 독자군인 사무직 직장인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시작될 하반기로 접어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위기에 처한 출판계를 살리기 위해 긴급자금 5백억원을 수혈한 지 어언 6개월이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 출판사에 지원하려던 3백억원은 도서유통의 평균 이윤의 두배가 넘는 높은 이자 때문에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경영위기를 맞았지만 막상 지원금을 쓰지도 못하는 출판사들은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학술도서 지원금을 늘리고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으로 본격적인 위기를 붙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명패만 달고 있는 무실적 출판사의 '퇴출'로 어느 정도 거품이 사라졌을 때, 정작 양서출판도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 오완진 기자

아비의 서가에서 자식의 책꽃이로

신서원

종로구 교남동 47-2 협신빌딩 203호
전화번호 739-0222/팩스번호 739-0224

신서원은 10년을 한결같이 역사서를 만들어왔습니다.

0. 史料

001~2 북역삼국사기(상, 하)
김부식: 고전연구실
〈상〉 15,000원 / 〈하〉12,000원

003 신편 삼국유사
일연: 이상호, 신서원 편집, 12,000원

004 북역 삼국유사
일연: 이상호, 12,000원

005 경국대전연구
윤국일, 15,000원

006 고려사색인(1)
연세대 국학연구원, 30,000원

007~017 북역고려사 ~4(世家) 고려사5~7(志) / 고려사8~11(列傳)
정인지 외: 고전연구실: 편집부 편집
1~4·5·7·9권 각 14,000원 /
6·8·10·11권 각 13,000원

018 경제육전집록
연세대 국학연구원, 12,000원

1. 通史·概說書

101~2 조선토지제도사(상, 중)
박시형 〈상〉10,000원/〈하〉12,000원

103 조선봉건시대농민의 계급구성
김석형, 10,000원

104 세계사의 기초지식
김태승 편역, 10,000원

105 역사학개론
이상신, 10,000원

106 사료한국사
이연복·윤종일, 10,000원

107 동아사상의 보수와 개혁
이춘식 편, 7,000원

109 한국역사상의 라이벌
김갑동, 8,000원

3. 考古·古代

201 고구려벽화고분
최무장·임연철, 20,000원

202 발해사의 이해
임상선 편역, 10,000원

203 통일신라시대의 지방세력연구
최근영, 6,000원

204 고고학에의 접근
최몽룡, 6,000원

205 한국사의 이해(고대, 고고)
윤내현 외, 8,000원

206 고고학발달사
글린 다니엘: 김정배, 7,000원

207 발해의 대외관계사
한규철, 9,000원

208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 사회변동
한국고대사연구회, 9,000원

209 한국사의 시대구분
한국고대사연구회, 8,000원

210 고조선과 부여의 제문제
한국고대사연구회, 10,000원

211 신라수공업사
박남수, 12,000원

212 가야제국의 철
가야문화연구소, 8,000원

214 한국고대사회의 지방지배
한국고대사연구회, 13,000원

215 가야제국의 왕권
가야문화연구소, 8,000원

3. 中世史

301 한국사의 이해(조선시대 I)
송병기 외, 9,000원

302 조선후기 군제사연구
최효식, 12,000원

304 조선시대수군
장학근·이민웅, 20,000원

305 초려 이유태의 학맥과 정훈
이해준, 9,000원

306 고려 무인정권기 연구
황병성, 12,000원

4. 近·現代史

401 한국사의 이해(근, 현대)
이현희 외, 8,000원

402 한국근현대 사회사상사연구
김기승, 8,000원

403 한국민족주의와 여성운동
이윤희, 8,000원

405 근대한국의 사회변동과 농민전쟁
김양식, 11,000원

406 한국독립당연구
노경채, 10,000원

407 한국근대 경제사연구
하원호, 10,000원

408 태평양전쟁기 조선공업연구
김인호, 15,000원

5. 東洋史

501 중국고대사의 전개
이춘식, 12,000원

502 중국역사의 발전형태
마크엘빈: 이춘식 외, 8,000원

503 인도민족주의 운동사
조길태, 7,000원

504 중국의 신사
장중례: 김한식 외, 7,000원

505 일본의 봉건제
페터두스: 양필승·나행주, 5,000원

506 동양사의 기초지식
김태승 편역, 10,000원

507 아시아생산방식
중국사회과학원: 이상규, 7,000원

508 중국역사(상, 하)
중국역사연구실
〈상〉10,000원 / 〈하〉9,000원

510 중국사와 불교
아서 라이트: 양필승, 5,000원

511 전통중국인의 일상생활
자크 제르네: 김영제, 7,000원

512 당송재정사
김영제, 7,000원

513 중국사의 시스템이론적 분석
김관도: 하세봉, 7,000원

514 일본의 중국사논쟁
타니카와 미찌오: 정태섭 외, 10,000원

515 중국중세사 7,000원
미야자키 이치사다: 임중혁 외,

516 중국통일·중국분열
갈검웅: 숙사연구회, 7,000원

519 중국경제지리
후신: 윤원호, 12,000원

520 중국역사의 개혁·개방사
장쭈어: 오재환, 7,000원

521 중국공업화의 역사
이케다 마코토 외: 김태승, 7,000원

522 중국경제사
퍼킨스: 양필승, 9,000원

523 홍콩
하마시다 다케시: 하세봉 외, 7,000원

6. 西洋史

602 서양사의 기초지식
김태승 편역, 9,000원

603 (개정)서양사학사
이상신, 20,000원

604 프랑스농촌사의 기본성격
마르크 블로크: 김주식, 10,000원

605 고대아테네 정치제도사
최자영, 9,000원

606 매너의 역사
노버트 엘리아스: 유희수, 10,000원

607 독일 제2제국
한스-울리히 벨러: 이대헌, 15,000원

608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베어드: 양재열·정성일, 10,000원

609 마르크스 이후
테렌스 볼: 석영중, 9,000원

610 스탈린혁명
로버트 대니엘스: 석영중, 8,000원

611 베버와 마르크스
오오쓰까 히사오: 임반석, 4,000원

612 마키아벨리와 국가이성
진원숙, 15,000원

613 중세유럽의 도시
앙리피렌느: 강일휴, 7,000원

614 서양사산책
진원숙, 9,000원

615 초기사회운동의 이론
한기영, 5,000원

616 태평양전쟁 맥아더 그리나 니미츠
포터: 김주식, 20,000원

617 약탈의 역사
패리: 김성준, 10,000원

7. 其他

713~715 신석호전집(상, 중, 하)
치암신석호전집간행위원회, 전집 100,000원

8. 아시아叢書 (아시아총서는 총 10권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간행된 책은 다음의 3권뿐입니다)

801 아시아 역사와 문화(중국사 고대)
박건주, 9,000원

804 아시아 역사와 문화(중국사 근세 II)
정성일, 9,000원

805 아시아역사와 문화5(중국사 근현대)
하세봉, 11,000원